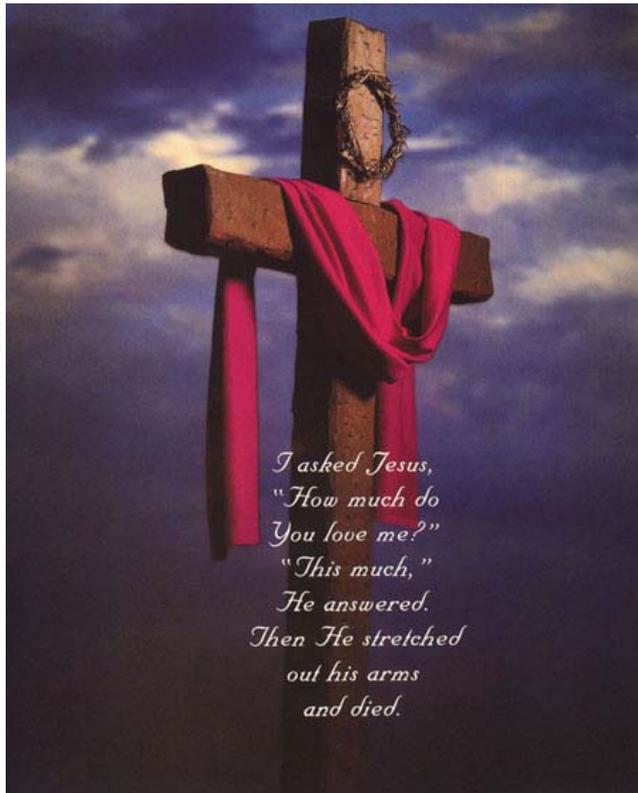


만남

발행처: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
 주소: Danzigerstr. 62·20099 Hamburg
 전화: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www.mannam.de
 E-Mail: korea-ham@mannam.de
 사목회장: 김부남(베드로) Tel 040/63 60 69 06



4월중 미사 안내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미사 30분 전부터 고해성사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7:30 화 19:00 수 19:30 목 19:00 금 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 **Bankverbindung** : Erzbis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Dresdner Bank **BLZ** : 200 800 00 **Konto-Nr.** : 560 79 29 00

사 순 절 과 부 활

고통과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에 주어진 문제이다. 하느님은 왜 우리를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 창조하셨는가? 예수의 고통과 죽음이 이 물음에 대해 해답을 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교인은 그렇게 믿으면서 그분의 고통과 죽음에 매달린다. 아프면 고통을 없애달라, 죽을병에 걸렸을 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그분의 최후를 보면 그분이 우리 삶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에 회의가 생기기도 한다. 그분 자신이 당신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이다. 자기 고통 하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에게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설이 아닌가? 사실 예수는 고통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깊은 곳에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 오셨다.

그분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지금 당장 제거하거나 먼 미래로(소위 우리의 죽음 이후로) 미루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안에 하느님 나라(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가 와있음을 알리고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후'나 '밖'만을 향하던 시선을 '지금 여기' '안'으로 향하게 하신다. 내 안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 하느님이 숨어 계시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고통에서 고통만 바라볼 뿐 그 고통을 뚫고 자기의 내면 깊은 곳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저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한다. 죽을병이 걸리면 죽겠다고 아우성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기에 급급하다. 지금 그 병에서 벗어나면 영원히 아프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기도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의 걸만 맴돌며 방황한다. 그리고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사순절은 인생이 겪는 고통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 감추어 있는 고통의 의미를 들여다 보게 하고,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한다. 사순절은 고통과 죽음을 통찰하는 시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하느님나라의 행복을 발견하게 해준다.

부활이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괴로운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 있는 영원한 삶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사순절 동안, 고통과 죽음 안에 감추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자만이 부활이 왔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시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본당 홈페이지 『이제민 신부 인생날말 사전』에서 발췌

사도 성바오로

1. 바오로의 생애에 관한 사료

바오로의 생애와 업적(業績)과 인품을 알아보는 데 제일 중요한 사료(史料)는 그의 서간들이다.

예수 탄생 후 51년 경에 저술된 데살로니카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 오는 바오로의 서간들 중 제일 오래된 것이고 그 외에 서간들은 바오로의 포교활동 수년 동안에 저술되었다. 그러나 이 서간들에는 서간 저술 이전의 사건들도 실려 있다(갈라 1,11-2,14; 꼬린 후 11,22-33; 12,1-10).

바오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말이 드물고, 주로 여러 지방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의 서간들에는 바오로의 일생에 관한 기사는 비교적 적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마음을 썼을 뿐 자신의 문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필립 1,18). 하지만 이 서간들은 바오로의 위대한 인격과 사상, 그의 감정과 활동을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우리가 바오로의 인간상을 초대교회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눈앞에 그리 수 있는 것은 이 서간들의 덕택이다. 사실 예수의 모상도 바오로처럼 뚜렷하게 전해 오지 않고 있다. 예수의 말씀은 번역과 전승(傳承)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오는 것에 반해서, 바오로의 경우에는 그의 친서(親書)들이 직접 우리에게까지 전해오고 있다.

바오로의 서간들 이외에도 그의 생애에 관한 사료가 있으니, 바오로 사도의 포교활동 윤곽을 대개 연대순으로 적은 사도행전 13-28장이 그것이다.

2. 출생과 교육

바오로의 출생 연도는 알 수 없다. 예수보다 약간 연소(年少)한 듯하다. 예수 탄생 후 33-35년경에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바오로는 젊은이었다고 하니(사도 7,58) 대개 25-39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오로는 예수 탄생 후 5-10년경에 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당시 근동 지방의 중요한 도시였던 다르소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다르소는 비옥한 길기리아 평원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항구도시였다. 중요한 육로들이 북으로는 밀레토,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등 희랍 문명이 발달된 서(西)소아시아로 통하고, 남(南)으로는 시리아, 팔레스티나를 통해서 근동 셈족의 세계와 연결된 두 문명의 교차점에 놓여 있었다.

바오로의 집안에서는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였다. 필립보서 3,5에서 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벤야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헤브레아 사람 중의 헤브레아 사람입니다." 벤야민 지파 중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울왕이었던 관계로 그는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바오로(Paulus)라는 이름도 가졌으니, 이것은

희랍 및 로마 세계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다마스고스에서 개종(改宗)함과 동시에 그의 이름이 사울로부터 바오로로 개명(改名)되었다는 설은 옳지 않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다. 바오로가 신봉한 유대교는 소위 해외(Diaspora)유대교였던 관계로 유대인 밖의 세계와도 접촉이 많았다.

다르소스 또한 로마제국의 도시였다. 제국은 도로를 통해서 각 지방으로 연결되었다. 이 도로 체계로 인해서 문물(文物)교환이 대량으로 가능했고 시민들의 여행도 매우 편리했다. 바오로 역시 제국의 교통망을 이용해서 많이 여행하였다. 사도행전 20,13에 보면 바오로는 트로아스(Troas)에서 아소스(Assos)까지는 도보로 여행하고, 아소스에서는 선편을 이용했다.

바오로는 다르소의 가정과 유대교 회당(Synagoge)에서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그 후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유대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바오로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Gamaliel)의 문하생으로서 선조들의 율법을 연구했다(사도 22,3). 그는 신학과 유대 법률을 연구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시편(詩篇)과 작시법(作詩法) 및 구약성서의 주석법을 습득했다. 바오로는 당시 바리사이파(학과 및 종파)에 속했다. 바리사이는 그 어원 자체가 지시하듯 "분리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과는 달리 엄격히 율법을 준수했던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 정력을 쏟아 섬기려 했다.

바오로는 또 희랍 문화권에 위치한 해외 유대교(Diasporajudentum)출신이었다. 해외 유대교는 예루살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비유대 세계와도 접촉이 많았고, 따라서 개방적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르소의 통용어인 희랍어를 배웠으며 희랍식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그가 읽은 성경 역시 희랍어역(70인역)이었고, 선교사로서 역시 희랍어역 성서를 사용했다. 그가 이처럼 희랍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어려움 없이 희랍세계에서 활동하고 서간들 역시 희랍어로 작성할 수 있었다. 그는 안띠오키아, 테살로니카, 이테네, 꼬린토, 에페소 같은 유명한 희랍 도시에서 언어의 장벽이 없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 바오로는 또 로마제국의 위력을 체험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시민권을 이용해서 제국의 보호를 필립보의 관청(사도 16,37)에서, 그리고 로마군 백부장(사도 22,25)으로부터 요구했다. 지방 법정에서 자기 권리를 변호하기곤란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재판정으로 직소(直訴)한 결과 그의 소원이 수락되기까지 했다(사도 25,11). 그러니까 바오로의 인격과 그의 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3대 요소는 유대교, 희랍 문화 및 로마제국이다. 바오로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사이였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의 중대성, 또한 유대 사상과 예수의 복음의 상이점을 어느 사도보다 예리하게 느꼈다. 둘째로, 그는 해외 유대인으로서 희랍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바리사이보다 폭넓게 생각할 수 있었다. 셋째, 그는 로마제국을 인정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율법만을 강조하는 유대 지도층에 비해서 제국 정치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이상 세가지 요소들이야말로 바오로 사도가 역사적 업적을 남기게 한 배경이다.

3. 사도 바오로

신약성서를 보면 사도행전 7,57에 처음으로 바오로가 등장한다. 스테파노 순교 때 순교자의 옷을 바오로의 발 곁에 놓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오로는 스테파노의 치명에 동조했다. 그후 그는 열렬한 박해자로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핍박했다(사도 9,1-2). 그가 다마스꼬스 근처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오로의 생활에는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만 두세번이나(9,1-19; 22,6-11; 26,12-18)기술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1,13-17에서도 하느님이 자기에게 당신 아드님을 계시(啓示)하셨다고 한다. 고린토 전서 9,1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뵈었노라고 하며, 고린토 전서 15,8에서는 다마스꼬스의 체험을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발현을 체험한 것과 비교해서 말한다. 필립보서 3,12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잡혔다고 한다. 바오로는 그 시각에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정복당했다고 확신했다.

예수가 곧 메시아이며, 예수로써 구약은 종말을 고하며, 유대인 외교인의 구별이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곧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깨달음이 바오로라는 인물을 일변시켰다.

다마스꼬스의 사건은 바오로라는 한 인간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작용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로 불림을 받은 바오로는 곧 전도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9,20에 의하면, 그는 곧 다마스꼬스의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다고 한다. 갈라디아서 1,17에 의하면 그는 회개 후 즉시 아라비아로 갔다고 한다. 다마스꼬스에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猜忌)로 피신하게 되었다(고린 후 11,32; 갈라1,17; 사도 9,24-25).

그가 회개한 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으니(갈라 1,18), 바르나바(Barnabas)가 바오로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것이다. 바오로는 15일간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베드로 및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회담했다. 그후 바오로는 고향 다르소에 가서 여러해를 보냈다.

그런데 스테파노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신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피신하여 각지에 새 교회를 설정했다. 이 때에 안티오키아에도 교회가 설립되었으니, 신자들의 일부는 유대인들이었고, 일부는 외교인들이었다.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협조자로 바오로를 생각하고, 마르소에서 안티오키아로 불러왔다. 두 사람이 발을 맞추어 약 1년간 안티오키아에서 일했다(사도 11,19-26)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로부터 선교여행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우선 바르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섬을 찾아보고 , 거기서 소아시아로 건너가 이꼬니움(Ikonium)과 리스뜨라(Lystra)를 지나서 데르베(Derbe)까지 갔다. 이 첫 선교여행은 약 2-3년간 계속되었으며 예수탄생후 45-48년 사이에 실시된 듯하다. 여행을 마치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와서 두사람은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사도 14,28). 바오로는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만일 인간이 율법으로써 구원이 된다면야, 구태여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한답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 이 결론에 따라서 바오로는 구약의 율법에서의 해방, 말하자면 복음의 자유를 부르짖었고, 이 명석한 신학 사상으로 바오로는 초대교회의 분열을 방지하여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 절대적 공헌을 했다.(갈라 2,11-21 참조).

종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었던 실라(Silas=Silvanus)(사도 15,32 참조)와 함께 바오로는 안티오키아로부터 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났다(사도 16,1).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육로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제 1차 선교여행 때 창설한 교회들을 살펴본 다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유럽이 마주 보이는 보스포르(Bosporus) 해협까지 갔다(사도 15,41-16,8). 하느님의 계시(啓示)를 받고 선교사들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으니(사도 16,9-10), 이것이 선교사들이 유럽에 발을 디디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필립보시(사도 16,12-40)와 데살로니카시(17,1-9)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 후 아테네까지 가서 설교했다(17,16-34).

고린토를 떠나서 해로로 에페소에 도착 거기서 다시 체사레아로(예루살렘까지?)갔다가 안티오키아로 되돌아왔다(사도 18,19-22). 이상 제 2차 선교여행은 50-53년에 있었다.

안티오키아에서 잠시 있다가, 곧 바오로는 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다(사도 18,23-21,16). 안티오키아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종전에 설립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에페소에까지와서는 그곳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선교했다(사도 19,1-20,1). 에페소에서는 "크고 중요한 문이 내 앞에 열려"(고린 전 16,9)있다고 말할 만큼 선교가 잘 되어 중요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여기서 갈라디아 서간이 저술되었으며, 고린토로 여러 서간들을 (그 중 고린토 전서가 오늘날까지 보존되었다.) 발송했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Artemis)신전을 둘러싸고 돈을 벌던 은장이들과 성물(聖物)장사들은 바오로가 열성으로 선교하는 바람에 그들의 영업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소란 때문에 바오로는 회랍으로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을 방문했다(사도 20,3). 이때 여기에서 고린토 후서를 작성했다(고린 후 2,12-13; 7,5-6). 고린토교회와 사도간의 격심한 오해를 풀고 나서 바오로는 아카이야 지방으로 가서 고린토에 3개월간 머물렀다(사도 20,3). 여기서 그는 로마서를 저술하고(로마 15,25-26) 마케도니아로 돌아와서(사도 20,3), 주로 해로를 이용, 별로 머무르는 일 없이 티로 (Tyrus)로 왔다.

티로에서는 불길한 앞날을 직감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사도 20,13-21,17). 제 3차 선교 여행은 53-58년 경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바오로가 예감했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는 수난을 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오로가 한 외교인을 성전에 데려왔다고 공격했는데, 외교인을 성전에 데려오는 것은 당시 유대교법에 의하면 사형감이다. 다행히 로마군 보초들이 개입해서 바오로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사도 21,27-23,10). 예루살렘에서는 바오로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군 천부장은 그를 체사레아로 보냈으며, 바오로는 미결수로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펠릭스 총독의 미결감에

서 2년이란(58-60) 세월을 보냈다.

펠릭스의 후임으로 온 페스투스(Porcus Festus)총독이 바오로에 관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을 보고, 바오로는 로마에 있는 황제 판정에 직소(直訴)했다(사도 25,1-26,32).

위험 많은 항해 끝에(사도 27,1-28,13), 그가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던 로마에(사도 19,21; 23,11)미결수의 몸으로 도착했다. 로마에서 그는 2년간(61-63) 별로 감시가 심하지 않은 미결수 생활을 했으니, 따로 집을 전세내서방문객을 받을 수 있었고, 선교활동까지 할 수 있었다(사도 28,17-31). 이 동안에 그는 소위 수인서간들을 집필했다(에페소서, 골로세서, 필레몬서, 필립보서?).

사도행전은 이것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오로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때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로마의 주교 클레멘스가 고린토 교회에 보낸 서간(5,5), 또 고린토의 주교 디오니시오(Dionysius, 예수 탄생 후 170년), 메리틀리아누스 등의 등언에 의하면 바오로는 로마 근처 오스티아(Ostia)에서 참수 치명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예수탄생 후 67년 경에 순교하신 것으로 본다. 2세기 말엽부터

바오로의무덤이라고 전해 오는 자리에 저 유명한 "성 밖의 성 바오로의 대성전"이 서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오로의 여행과 업적을 일일이 기록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일부분만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고린토 후서 11,23-33에 나열된 바오로의 고생담(苦生談)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복음이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쉴새 없이 화심(火心)으로부터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으로바오로는 생각했고, 복음의 힘찬 말씀은 온 세상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잠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진취적인 확신 때문에, 바오로는 한곳에 만족하고 머무를 수 없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쉴새없이 쫓아다녔으며, 자기가 선교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후계자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던 것이다. 바오로의 선교방법은 복음을 한 장소에 일단 설교하면, 복음자체가 스스로 그 주위 세계를 정복한다고 보았고, 이것은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서 옳았다. 예를 들면 바오로가 에페소에 선교한 결과, 바오로가 전연 선교하지 아니한 콜로세와 라오디체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 교회들의 명단을 보아도 교회가 얼마나빠리 번져나갔는지 알 수 있다(Pontus, Galatien, Kappadozien, Asien Bithynien). 요한 묵시록 2-3장에 나오는 교회 명단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을 엿볼 수 있다(Ephesus, Smyrna, Pergamon, Thyatira, Sardes, Philadelphia, Laodizea).

그러니까 복음을 일단 한 곳에 선언하면 복음은 자력(自力)으로 주위를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 바오로의 생애를 크게 살펴보는 가운데, 개략적인 연대(年代)를 사용해 왔다. 바오로의 연대를 규정한다는 것은 학술상 대단히 힘드는 문제이다. 연대를 규정하는 데 가장 중대한 사료는 1905년에 델피(Delphi)에서 발견된 비문(碑文)이다.이 비분은 오늘날 델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클라우디우스(Claudius)황제가 델피시에 보낸 서신이 새겨져 있으며, "아카이아 지방의 현총독 친구 갈리오(Gallio)"라는 말이 나온다. 비문의 연대는 예수탄생 후 52년 전반기(前半期)임이 거의 확실하다. 총독(Prokonsul)의 임기가 당시 일년간이었음을 참작하건대, 갈리오는 51-52년(혹은52-53년?)에 아카이아의 총독으로 재직하였다고 보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18,12-18에 보면, 바오로가 고린토에서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서 끌려간 적이 있다. 끌려가던 당시에 이미 바오로는 고린토에 일년 반 동안 머물렀으니, 바오로가 고린토에 머무른 연대는 50-52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연대를 기준으로 바오로의 선교활동의 연대순을 대략은 알 수 있다.

K.H. 셸클레 『신약성서 입문』에서 발췌

♡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지혜 12 가지 ♡

1.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혹 보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지혜요, 남의 허물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2.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들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다.
양값음을 하지도 말고 보복도 꾀하지 않는다. 욕설을 퍼붓더라도 끝까지 참는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빼있는 말로써 남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지 않으며
자신의 책임이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4.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다.
남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5. 남을 도우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6. 면전에서 비난받더라도 성내지 말고 능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모든 번뇌 가운데서 증오가 가장 파괴적이다. 증오는 이제까지 쌓아온 공덕을 한꺼번에 소멸시 켜버린다.
7. 자비와 연민을 개발한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고뇌를 위로하는데 눈뜬다.
자주 접촉하는 사이일수록 화내고 신경질 낼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8.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 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 버려라. 만약 그들이 맞다면 그들에게서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9. 타인이 잘못 행동해서 무엇이 정확한가를 지적해 주었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쯤에서 그대로 놔두어라.
10.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자는 박덕하며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자는
그릇이 작아 대성하지 못한다.
11. 성질이 불꽃같아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장수하지 못하고 입이 경솔하여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기 쉽다.
12. 남을 물 속에 끌어넣으려면 자신도 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이
남을 증상 모략하여 해를 입히는 자는 자신도 망한다.

이 글은 본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남궁춘배'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야곱의 우물』 소개서



“야곱의 우물”은 94년 창간된 잡지로 성바오로딸 수도회에서 수녀들이 평신도 신학자들과 뜻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창간되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성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삶의 실천으로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창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야곱의 우물』은 성서를 그저 쉽고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깊이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펴내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의 성서 본문과 함께 ‘매일 성서 묵상’이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는 예수회 송봉모 신부의 ‘요한복음 산책’은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며, 마음을 열어주는 정감어린 시로 엮은 ‘밀돌’과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교재인 ‘햇살지기’, ‘태도 이야기’와 ‘성서의 상징’, ‘성서 돋보기’는 벌써 많은 이들의 교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만화 ‘성서따라 뜻따라’ 등 다양한 읽을 거리로 작지만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잡지발간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복음을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할지를 가장 어려워하였고 또 그만큼 필요와 바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쉽고도 진지하게 그러나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성서를 만날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의 기도와 사도적 창의와 노동을 봉헌하며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잡지이기에 훌륭한 ‘사목의 협조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신부님과 그 본당의 신자분들께 잡지구독을 위한 선교를 계획한 것입니다.

언제나 바오로딸들의 사도직을 이해해주시고 『야곱의 우물』을 아껴주셔서 감사드리며, 잡지의 발전을 위한 제안 또한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구독료 : 1년에 US \$ 41(42,800 원)
 - Tel : 02) 9440-832~4
 - Fax : 02) 987-5275
 - E-mail : jacobone@pauline.or.kr
- ※ 한국에 연락되는 분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4 월의 독서자 (반)

일	독서자
4 일	한독부부
10 일	손대로(요셉) 강순행(말가리다) 한말로(마리안나) 문경영(아가다)
11 일	이경규(인스카) 유곡지(아그네스)
18 일	어린이 미사
25 일	김춘식(임마누엘) 이민희(세실리아)

5 월의 독서자 : 살롬반

4 월 모임

- ◎ 사목회의: 4 일(일) 예수성심성당
- ◎ 반장회의: 22 일 (목) 사제관 친교실
- ▣ 레지오 마리아
 - 자비의 모후: 매 주 (월)
19 시 30 분 사제관 친교실
 - 죄인의 의탁, 평화의 · 믿는 이들의 모후
: 매 주 (화)
19 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 기도 회: 둘째 주, 넷째 주 (수)
16 시 사제관 친교실
- ▣ 성가대: 매 주 (수)
19 시 30 분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 ▣ 울뜨레아 회합: 추후 알림

4 월 반 복음 나누기

- ▶ 햇빛 반: 18 일 (주일) 미사 후
최성욱(스테파노)님 가정
잠원 6 장 16-23
- ▶ 무궁화반: 추후 알림
- ▶ 비둘기반: 추후 알림
- ▶ 동글레반: 18 일 (주일) 미사 후
김치수(도민고)님 가정
신부님 모시고 복음 나누기
- ▶ 살롬 반: 2 일 (금) 18 시 30 분
김대현(도민고)님 가정
복음 나누기 및 가정 미사
- ▶ 은총 반: 추후 알림

4 월 영명 축일

▶ 본명과 축일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분은 편집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Hamburg 공동체

- 8 일 **율리아** 서유리
- 11 일 **젬마** 이수빈, 이정자, 홍명주
- 13 일 **마틴** 김성일
- 16 일 **벨라뎃다** 김신자, 최성자
- 25 일 **마르코** Marko, 노부 아베, 강석진, 김희
- 29 일 **카타리나** 이화자, 홍혜정
- 30 일 **소피아** 문미연, 김주현, 백혜미, 이명희

Bremen 공동체

- 2 일 **마리아** 황치숙
- 5 일 **크레쎌시아** 양형례
- 18 일 **알렉산더** Alexander Rausch

Hannover 공동체

Osnabrück 공동체

- 25 일 **마르쿠스** 김우남

Braunschweig 공동체

▶ **알림 1.**
만남 편집부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월호 : 성모 성월

원고는 전월 셋째 주까지 마감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알림 2.**
청소년을 위한 페이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가족 이야기, 주일학교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소 식

▶ 3월 2일(화), 19시 미사 후 사제관 친교실에서 남성 레지오 „믿는 이들의 모후“ 창단, „사도들의 모후가 „자비의 모후“ 로 분단되었습니다.

▶ 3월 5일(금)-7일(주일)까지 실시한 재독한인 사목자 교환 사목으로 우리 본당에는 마인쓰 본당 한병헌(필립보) 신부님께서 오셨으며, 주일미사 후에는 사순절 특별강론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3월 25일(목) - 29일(월)까지 주임 신부님께서는 강의차 파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본당 신부님을 대신하여 München 에서 공부하시는 부산 교구 소속 김형수(베드로) 신부님께서 오셔서 주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3월 14일 사목회의 보고

· 복음화 분과

- 교환사목 때 피정식 강론.
(토요일에도 강의나 피정으로 이용)
- 교환 사목은 해당 본당의 주임 신부가 하는 일을 손님 신부가 와서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활 예비자 입교식에 신자들의 많은 협조 바람.
- 한독가정 친목모임 구상중(5월중).
- 남자 레지오 창단 준비중.
- 주일 미사 후 건강 걷기 운동 계획.

· 구역분과

- 무궁화반에서는 이경규(안스카) 님이, 비둘기반에서는 한말조(마리안니) 님이 반장으로 수고해 주시기로 함.

· 청년부

- 3월부터 첫 금요일 저녁 사제관 친교실에서 친교 모임을 가지기로 함.
- 4월 17-18일: 청년반 피정,
- 5월 8-9일: 베를린 청소년과의 만남.

· 주일학교

- 8월 15일 성모 승천일에 있는 첫영성체를 6명의 어린이가 준비하고 있음.
- 4월 10일: 부활 계란 그리기.
- 4월 18일은 주일학교 어린이가 미사 준비.

· 홍보부

- 본당 홈페이지를 활발히 이용바람, 컴퓨터 교육 계획.

*확대회의: 4월 4일 확대회의. 전 사목위원 (분과장, 반장, 단장, 신심단체장들) 참석 바람.

♡ 주일 봉헌자 ♡

- 4월 4일 : 김성중(요셉), 손숙경(보니파치아)
- 4월 11일 : 김유석(그레고리오), 김애란(세실리아)
- 4월 18일 : 김치수(도민고), 김영희(그라우디아)
- 4월 25일 : 이철수(아우그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 5월 2일 : 허길조(안드레스), 이명자(가밀라)

♪ 카페당번 순서 ♪

- 4월 4일 햇빛반
- 4월 11일 은총반
- 4월 18일 비둘기반
- 4월 25일 레지오마리아(평화의 모후)
- 5월 2일 샬롬반

☺ 주일안내 ☺

- 4월 4일 · 4월 11일 : 햇빛반
- 4월 18일 · 4월 25일 : 동글레반
- 5월 2일 · 5월 9일 : 무궁화반

우리들의 정성

주일	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3월 21일
계 (euro)	164,16	171,87	173,35	166,74

지방 공동체 소식

Bremen 공동체 -----

Hannover 공동체 -----

Osnabrück 공동체 -----

Braunschweig 공동체 -----

☞ **알림 !!** 4월 17일(토) 오전 11시, 예수 성심 성당 친교실과 복도, 성전 대청소를 하고자 하오니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월 전례 및 행사

4 월	요일	내 용
1	목	19 시 미사 후 성시간
2	금	봉성체
3	토	17 시,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4	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지 가지를 축성한 후 입당함 미사 후 친교실에서 확대회의
5	월	
6	화	
7	수	
8	목	19 시, „주님 만찬 성목요일“ 독일 교우들과 합동미사 미사 후 „십자가의 길“ 기도, 수난감실 성체조배(22 시~23 시)
9	금	15 시, „주님 수난 성금요일“ 독일 교우들과 합동예절
10	토	20 시, Danziger Str. 대강당 „부활 성야 미사“ 빛의 예식(부활초는 본당에 준비되어 있음), 미사 후 다과와 음료수 나눔 □ 둥글레반과 사목위원들께서는 장내 정리 봉사를 위해 미사전 1 시간 30 분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11	일	15 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미사 후 예비자 입교식과 나눔의 잔치가 있습니다. ※행사 전후 장내 정리 봉사 : 샬롬반, 은총반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청년 피정(17-18 일) : Ostsee-Priwall
18	일	18 일(주일) : 주일 미사 후 울뜨레야 회합
19	월	
20	화	
21	수	
22	목	19 시 미사 후 반장 회의
23	금	
24	토	
25	일	미사 후 31 회 배구대회 준비를 위한 봉사자 모임
26	월	
27	화	26 일(월)-5 월 1 일(토): 주임 신부님 Oslo 공동체 방문 계획
28	수	30 일(금) : 18 시, 사제관 친교실에서 제 31 회 배구 대회 준비를 위한 각 단체 대표자 회의
29	목	
30	금	
비 고		